

주요개념 : 사회적지지, 연, 정, 도움, 믿음, 사랑,

한국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

오가실** · 박영주***** · 오경옥*** · 김정아****
이숙자***** · 김희순** · 정추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적 지지망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심리적, 물질적 도움을 포함하는 상호 호혜적인 특징을 지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지지 관련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사회적지지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론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지지에 대한 정의가 더욱 모호하고 광범위해지면서 사회적지지 개념의 독특한 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Patterson, 1992).

국내에서는 1980년초부터 사회적지지에 대한 간호학자들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개념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국문헌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지지 개념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개념화한다거나 총망라하는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사회적지지의 의미가 '정부의 보조와 지원'의 의미(박지원, 1985)로 이해되기도 하므로, 사회적지지의 한국적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외

국문헌에서조차도 그 의미의 혼돈과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는 사회적지지 개념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점에서 오가실 등(1994)은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의식 구조와 문화속에서 사회적지지는 개념의 이해와 사용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사회적지지의 한국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에 상응하는 한국어 어휘는 찾을 수 없으나 사회적지지는 한국인의 삶속에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연'(緣)이 기본이 되어 '도움', '정(情)', '은혜(恩惠)' 및 '믿음'의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중년 여성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를 기술하고자 시도되었다.

II. 문헌 고찰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기본틀로서의 '연'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가족, 문중, 친족같은 혈연적 집합체가 핵심이 되고, 직접 혈연관계가 없는 관계도 일차적으로는 혈연적인 연고로 환원시킴으로서 내집단 또는 우리집단을 형성하는 즉, 집단의 인간관계를 사회에까지 확대시키면서 사회의 모든 집단을 집(가족)의 관념으로 인식하여 그 집단 성원의 행동양식이 집에서의 인간관

* 이 연구는 Signa Theta Tau의 사회적지지 Interest Group에서 실시된 것임.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벽제 국군병원 간호부장

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우리주의(Urism) 성향이 짙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경동, 1993; 최재석, 1994). 다시말해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가족과 가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가족외의 모든 관계도 유사가족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어 일단 인간관계의 연결망이 형성되면 연결망의 구성원들 사이의 의리와 연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일상문화연구회, 1996).

이러한 한국인의 인간 관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연'의 개념은 사람간의 관계에 있어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는 끈으로, 혈연이나 지연과 같이 자연 발생적 요소와 학연과 같이 인위적 구성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관계하는 두 사람 사이에 중씨, 동창, 동향과 같은 '연줄'을 찾아냄으로서 내집단으로서의 우리를 형성하는 것이다(이규태, 1991).

물론 이러한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틀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이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혈연과 지연등의 귀속(歸屬)적 자질에 의해 모임의 틀이 정해지던 전통사회의 모임과는 달리 '뜻'을 중심으로 그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원(自願)적인 유형의 모임으로 바뀌어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을 중심으로 한 틀이 중요시되고 있다(일상문화연구회, 1996).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응답자의 58.2%가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들 모임의 성격을 보면 직장, 직업관계 모임이 7.6%, 고향, 지연관계모임이 11.2%, 학교, 학연관계 모임이 18.8%, 지역생활관계 모임이 7.2%, 혈연, 인척관계 모임이 3.4%, 취미·동호인 모임이 8.8% 기타 1.2%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및 사업연이 모임의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2개 이상의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조직의 성격은 동창회, 친목회 등의 1차집단적 '연대추구형' 조직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목적추구형'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일상문화연구회, 1996).

한국인의 지지적 관계망 이러한 혈연, 지연, 학연 및 사업연 등의 연에 기초한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지적 관계망의 형태를 가족내, 가족외의 지지적 관계망의 형태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인의 가족내 인간관계는 혈연을 기초로 근본에 대한 보답 정신과 가족간의 협동이 존중되어왔다. 친족 역시 혈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로 집을 구심점으로 한 가족 단위의 관계를 유지

해가는 것이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접촉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길 흉사가 발생했을 때 상부상조하는 것은 불문몰로 되어 있어서 농경작업이나 기타 일 또는 명절이나 잔치때는 모여서 함께 일하고 즐기는 것 등 공동체적 기능이 강조되었다(한영우, 1987).

전통적으로 가족외의 지지적 관계망의 대표적인 형태는 두레, 계와 품앗이 뿐 아니라 세덤의 지혜, 향약 등의 전통적 세속이나 규약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두레는 농사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지연을 중심으로 한 지지형태로, 한 마을의 장정이면 누구든 두레에 참여해야했고 마음대로 두레에서 탈퇴할 수 없는 강제성을 갖고 있었다. 만약 두레에서 탈퇴하게 되면 마을을 떠나야하거나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 놓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장정을 낼 수 없는 병자가 있는 집이나 과부가 호주인 경우에는 이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두레꾼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주는 상부상조의 조직이었다(한영우, 1987). 계(契)는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해 여러사람이 모여 이룬 협동조직 또는 경제 조직으로, 일정한 돈이나 쌀, 곡식이나 피륙따위를 내서 이를 순번대로 계원들 한 사람씩 타가게도 하고 적립하여 대여하는 따위로 이식을 불러 어려울 때를 대비할 수 있게한 경제적 부조의 지지형태였다(이규태 1992). 또한 품앗이는 조금 규모가 작은 일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노동 교환수단으로, 두레의 공동적, 공동체적인 성격에 비해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두레가 농번기중에서도 바쁜 모내기과 논매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품앗이는 시기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조직되었고 작업의 종류도 농가의 거의 모든 일에 다 적용되었다. 특히 품앗이는 현대에와서는 인간관계에서 빛어지는 호혜적 행위(reciprocity)의 일체를 가리키는 매우 일반적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겉으로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의 가족의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위들의 근본 동기를 이루고 있어서 품앗이 관계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수평적 혹은 수직적 관계에 상관없이 맺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품앗이 관계에 있다 함은 그들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지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주희, 1992).

이외에도 셋을 더한다는 뜻의 '세덤'의 풍속은 밥을 지을 때 식구 수보다 세뭇을 덩으로 양식을 퍼내어 밥을 짓는 것으로 가난한 농촌에서 가난한 집의 어버이들이 좀 먹고 사는 집에 가서 청하지도 않은 설겅이며 빨래같은 일을 자청해서 거들어주고, 이 불청노동의 댓가로 그

집식구들이 먹다 남은 밥을 얻어 갖고 갈 수 있게 한 풍속이었다. 특히 이 불청노동은 거절해서는 안되는 것이 불문물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에서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규약인 향약에는 마을 사람끼리 서로 당하는 불행 곧 환난을 상휼(患難相恤)하고, 그리고 노(老), 고(孤), 과(寡) 등 어려운 사람의 상구(相救)를 동규(洞規)로서 보장하는 등의 규약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부상조를 통한 공생공존을 위한 복지의 세속이 존재하고 있었다(손인수, 1984).

이처럼 전통 한국사회에서의 지지적 관계는 혈연의 관계인 원초적 관계는 물론 비원초적인 가족의 인간관계에서도 지연을 기초로 하여 관계망이 형성되고 원초적 인간관계로 환원하는 한정된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여 강제성을 띠면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나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의 관계망은 여전히 연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단지 전통 한국사회에서의 혈연, 지연 외에도 학연, 교연 또는 사업연 등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연의 관계 속에서 관계망이 만들어져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성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망이 지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한국인은 일상생활속에서 어려운 문제나 고민거리가 생겼을 경우 이를 주로 상의하는 사람으로는 가족 등 혈연이 48.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교연(성직자, 교우) 25.5%, 학연(학교동창, 은사, 선배) 10.5%, 지연(동네사람, 고향사람) 7.0%, 직장(동료나 상사)의 순으로 보고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일상문화연구회, 1996).

한국인의 지지적 관계의 구성요소 이러한 한국인의 연에 기초한 관계망속에 흐르는 지지적 관계를 구성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정수복(1996)은 한국인은 개인의식보다는 집단적식의 동질성과 유대를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모임을 통해 한국인은 '정'과 '의리'를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하면서 정과 의리를 한국인의 다양한 모임의 공통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이규태(1994)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흐르는 맥을 '정'으로 표현하면서 '정'은 일방적인 자의 표시가 아니라 상대적 관계에서 자의나 타의와 아랑곳 없이 우러나는 객관적 존재로 그 상대적 관계의 시간적 지속과 말접한 연관이 있어서 정은 순간적 관계나 잠시동안의 관계같은 단지

간의 관계로 우러나지 않으며, 집단의 의사속에 개인의 의사를 수렴시켜 집단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모색, 공존할 때 생겨나는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다. 임태섭(1995) 역시 '정'은 대상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과 공동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으로 '정'은 대상을 향한 정신적 유대감이므로 친밀감과 달리 아주 지속적이고 안정성이 강한 정서로 따스하며 잔잔하고 계산적이지 않으며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쉽게 스러지지않는 정서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재환(1985)은 한국사회의 근본원리로 '도(道)'를 설명하고 있다. '도'는 모든 행위의 근본, 경애의 정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진실성, 성실성 등의 인간 생활의 도리로서 결국 믿음, 도리, 보은의 의미로서의 은혜의 개념으로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근본을 이루는 절대성을 지닌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상을 통해볼 때 문헌에서 제시되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의 지지적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주요개념은 '정', 의리를 포함한 '도(道)'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social support의 한국적 의미'연구(오가실등, 1994)는 한국인의 지지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 은혜, 도움 및 믿음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먼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배경과 의식 및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둘째 20세에서 69세까지의 다양한 연령, 사회계층 및 지역에 거주하는 6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관계와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개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학자, 철학자 및 한국 민속학자로부터의 자문과 연구자들간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한국인의 지지적 관계는 연의 연결망을 토대로 하여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고 도움의 형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는 정이라는 정서적 감각으로 전달되며 은혜로 느껴게되는 조건적 관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이를 '한국인의 사회적 지지 피라미트'의 개념틀로 설명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오가실, 1994)인 사회적지지의 한국적 의미에 이어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사회에서의 지지를 주고 받은 경험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두터워서 한국사회에서의 지지 경험의 속성을 잘 드러내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서울, 대전,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5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 여성으로 면담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중년 여성이었다. 표집 방법은 연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서울에서 27명, 대전 10명, 대구 9명으로 총 41명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들이 작성한 반 개방적 문항으로 구성된 면접지침서였다. 연구자들은 중년여성들이 갖고 있는 지지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상적인 위기상황을 본인과 배우자의 중풍이환으로 설정하고 이에대한 응답을 물었다. 즉, 배우자와 중년여성 자신이 중풍으로 쓰러진 가상적 상황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생각나는 대상, 대상으로부터의 기대내용 및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등을 묻는 것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가상적인 위기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현재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 실제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의 경우 현재의 지지에 국한된 응답 가능성 때문에 포괄적인 지지의 기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상적인 위기상황 설정이 오히려 중년여성 자신의 지지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면서 폭넓은 응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상적인 위기상황은 비교적 만성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위기가 초래되고 아직 어떠한 형태로든 적응이 되기 이전의 시기여야 그들의 지지경험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예측될 수 상황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은 I은 “당신의 남편이 현재 중풍으로 쓰러져 한 달 정도 누워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II는 I의 상황을 바꾸어 “당신이 중풍으로 쓰러져 한 달 정도 누워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었다. 응답에 대해 캐묻는 구체적 질문의 내용은 이러한 가상적 상황에서 :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습니까?’

‘왜 _____가 생각나십니까?’

‘_____가 어떻게 해주리라 기대하십니까?’

‘_____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인 ‘정’, ‘은혜’, ‘믿음’, ‘도움’을 제시해주고 그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그 것을 정, 은혜, 믿음, 도움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로 캐묻는 질문을 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들이 면접지침서를 사용하여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으며 수집기간은 1994년 6월에 서 1995년 6월까지 1년간 이었다.

면담내용은 면담과정중에 기록하거나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경우는 녹음 직후 기록으로 옮겨 적었다. 면담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였으며, 평균 40분이었다.

수집된 면담자료는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의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의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본 연구자들은 배우자가 중풍인 상황과 중년여성인 중풍인 상황에서 생각나는 대상, 그 이유, 기대내용 및 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가능한한 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나열한 후 일차 분류하였고 유사한 것끼리 묶어 빈도로 산출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황적 맥락(응답자의 연령, 결혼기간 등의 인구학적 특성, 각 상황에서 생각나는 대상에게서 기대되는 내용을 표현한 단어 등)에 따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어휘들을 사전연구와 문헌의 언어적 맥락, 의미를 검토하여 연구자들의 합의점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지지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중년여성의 평균 연령은 43.2세로 범위는 35세에서 57세였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으며 분포는 기독교 14명, 가톨릭이 11명이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고(27명), 11명이 고졸이었다. 직업은 직업이 있는 여성(21명)과 전업주부(20명)가 거의 비슷한 수였으며 결혼 기간은 평균 16.7년이였다. 형

제수는 평균 4.1명으로 범위는 0명에서 8명이었으며, 자녀수는 평균 2.2명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 : 41(명)

특 성 구 분	수(명)	백분율 (%)	평 균
연 령 (세)			43.2 (범위 : 35-57)
종 교			
기독교	14	34.1	
카톨릭	11	26.8	
불 교	9	22.0	
없 음	7	17.1	
학 령			
중 졸	2	4.9	
고 졸	11	26.8	
대졸 이상	27	65.9	
무응답	1	2.4	
직 업			
가정주부	20	48.8	
직장에 나감	21	51.2	
결혼기간 (년)			16.7 (범위 : 6-33)
자녀 수 (명)			2.2 (범위 : 0-6)
형제 수 (명)			4.1 (범위 : 0-8)

2. 기대되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상적인 두 개의 상황에 대하여 중년여성이 기대하는 대상,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 및 그들에게서 기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중풍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습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친정부모라고 응답한 수가 20명이었으며, 시부모는 17명이었다. 자녀는 18명,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10명, 친정형제 또는 자매가 11명, 절대자(하느님, 부처님) 7명, 의료진 5명, 다른 중풍환자 2명, 친구 3명, 친척 2명 등이었다<표 2>.

그와같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본 연구자들의 기대는 가상적 상황이 중년여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고 인식하는 주관에 의한 응답을 기대하였으나 응답자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지기대자 즉 배우자나 부모가 느끼는 또는 생각하리라고 예상하는 상

대방의 입장까지를 고려한 응답을 하였다.

<표 2> 상황별 지지 기대자

지지원	배우자 상황	본인 상황
	수(명)	수(명)
친정 부모	20	27
배우자	-	36
자녀	18	33
시부모	17	7
의료인	5	1
하느님, 부처님	7	8
친구, 직장 동료	3	
친척	2	
친정 형제	11	12
아무도 없다	1	
시댁 형제	10	2
환자	2	2
친구	3	4
간병인	3	
사회기관		
성직자	1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보면 중년여성 자신을 중심으로 응답한 경우는 지지기대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치료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도움’으로 표현한 사람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지기대자들이 앞으로의 치료나 생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줄 것이고 자신이 기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각 ‘방향결정’ ‘의지’라고 표현한 사람이 각각 4명이었다. 또한 위로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로’로 표현한 사람은 3명, 어떻게 든 도움을 줄 것으로 믿기때문이라하여 ‘믿음’으로, 상담 또는 의논의 상대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논)’로, 정신적으로 복돋아 줄 것이라고 하여 ‘정신적 지지’로 표현한 사람이 각각 2명의 순이었다.

예상치않게 지지기대자의 입장에서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미래를 포기해야할 지 모른다는 걱정때문에 ‘자녀들의 미래 포기때문에’(자녀 교육, 자녀 장래)로 표현한 사람이 3명,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상황에 대한 걱정을 염려하여 ‘걱정’으로 표현한 사람이 5명이었으며,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충격’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4명 그리고 기타 3명이었다<표 3>.

지지 기대자들이 어떻게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지지형태에 대한 응답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도움에 대한 기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체

〈표 3〉 상황별 지지 기대자에 대한 기대내용

기대내용	배우자 상황	본인 상황
	빈도(명)	빈도(명)
자신 중심		
도움(정신적, 경제적)	22	18
의지	4	7
보호자이므로		8
방향 결정	4	
믿음	2	2
위로	3	
상의(의논)	2	
정신적 지지	2	
기타	5	
지지기대자 중심		
자녀들의 미래포기	3	
걱정(부모)	5	
타격(경제적, 정신적)	4	
생활 도와주지 못하는 것	2	
아버지의 이미지(관계형성)	1	
미안함		4
가슴 아픔		2
안타까움		2
보살핌		2

적, 정신적 지지가 3명, 정신적 의지가 3명, 긍정 또는 인정이 2명, 위안 또는 위로, 안정, 다양한 조언이 각각 1명의 순이었다〈표 4〉.

〈표 4〉 상황별 기대내용

기대내용	배우자 상황	본인 상황
	수(명)	수(명)
도움(육체/정신/경제적)	16	20
도리		4
지지(육체적, 정신적)	3	2
의지(정신적)	3	1
긍정/인정	2	
위안/위로	1	2
안정	1	
조언	1	
문제 해결		2

한편 본인이 중풍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33명, 친정부모 27명, 친정형제가 12명, 시부모 7명, 절대자가 8명, 친구 4명, 다른 중풍환자 2명의 순이었다〈표 2〉.

‘그와같은 사람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족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명이었다. 지지기대자의 입장에서 응답한 경우에는 지지기대자가 자녀인 경우 자신의 병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데에 대한 마음을 미안함으로 표현한 사람이 4명, 가슴 아픔으로 표현한 사람이 2명, 안타까움으로 표현한 사람이 각각 2명이었다〈표 3〉.

‘지지 기대자가 어떻게 해주리라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불편한 것과 원하는 것 및 가정 일 등을 도와 줄 것이라는 ‘도움’으로 표현한 사람이 각각 20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4〉.

3. 사회적지지를 표현한 단어

배우자가 누워있는 상황과 본인이 누워있는 가상적 상황에서 중년여성이 생각난다고 지적한 대상들로부터의 지지의 기대내용을 표현한 단어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지지를 표현하는 단어

표현어	배우자 상황	본인 상황
	수(명)	수(명)
정	33	29
도움	26	24
믿음	23	23
사랑	18	18
도리	5	14
은혜	14	5
의무	5	11
지지	5	3
의지	1	2
책임		3
계약		2
기타	5	6

배우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중년 여성이 지지 기대자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으로 표현한 경우가 33명, ‘믿음’이 23명, ‘도움’이 26명, ‘사랑’이 18명, ‘은혜’가 14명이었고, ‘지지’, ‘의무’, ‘도리’가 각각 5명이었으며, 이외에 ‘격려’, ‘조언’, ‘안위’, ‘축하’, ‘애

뜻함' 및 '의지'로도 표현되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정'으로 표현한 사람이 제일 많아서 29명이었으며, '도움'이 24명, '믿음'이 23명, '사랑'이 18명, '도리'가 14명, '의무'가 11명, '은혜'가 5명의 순이었다. 그 외에, '지지', '책임'이 각각 3명, '의지', '계약'이 각각 2명이었고 그 외에 '친밀함', '고마움', '존중', '조리(역할)', '울타리(우리)', '자기 희생' 및 '필요'라고도 하였다.

4. 사회적 지지의 상황적 맥락

중년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상적 상황에서 중년여성이 생각나는 대상, 그 이유, 대상으로부터의 기대내용 등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이를 나타내는 단어등으로부터 유추된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중년여성들은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는 가상적 상황에서 배우자상황이든 본인상황이든 가족(배우자, 자녀, 친정부모, 시부모, 인척, 친척)을 우선적으로 기대하였으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황과 본인 상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가족중에서도 배우자, 자녀, 친정부모에게 우선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배우자를 지지 기대자로 보는 경향은 응답자의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고 결혼기간이 20여년 이상 된 중년여성은 배우자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확신도 있다고 반응하였다. 그들은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여태까지 같이 살아온 정' 때문에 당연하게 지지해줄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깊은 정, 신뢰, 믿음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결혼기간이 10여년 내외의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중년여성은 본인이 누워있는 상황이면 배우자가 실제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는 하나 '긴 병에는 효자 없다.' '오래 누워있으면 남편은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에 불안함을 나타냈고 배우자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표현도 '정'보다는 당연, 의무, 도리, 필요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를 볼때 가족관계에서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당연, 의무, 도리로서 표현하였으나 불안한 것이며, 관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축적된 '정'이나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안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년여성 본인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떠올리는 친정부모, 자녀간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지지형

태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그 속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정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혈연으로 이어져 있으며 도리, 의무, 당연함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거나 혈연으로 설정된 이 관계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당위적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중년여성이 친정부모가 연로해서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끝까지 자신을 지켜보아줄 대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점이며 반대로 배우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지지기대자로서는 시부모가 더 많이 지적되고 그 이유를 부모 자식간에 당연하다는 의무적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본인이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지지기대자로 생각하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는 자신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미안함, 자녀가 장성해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녀에게 부담만을 준다는 미안함. 즉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해준 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표현함으로 강한 의무감을 표현하였다. 과히 많지는 않았으나 본인상황에서 시부모나 시형제를 지목한 중년여성의 경우에도 그들로부터의 지지의 원천을 정, 은혜, 사랑보다는 '의무' '믿음'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년여성들은 이 혈연의 관계로부터의 지지를 '혈연의 정', '인륜', '끊을 수 없는 정', '끈끈하고, 끝없고, 조건없는 사랑', '부모로부터의 은혜' 및 '오래 지속되는 의지가 되는 관계'로 표현한다. 따라서 부모, 자녀간의 혈연관계는 공유의 시간과 관계없이 이미 무한하고 끝없는 관계가 전제되어 지지에 대한 기대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관계인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부부의 연을 맺은 뒤 일정기간 공유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서 지지에 대한 기대를 확신할 수 있는 관계로 보인다. 이때문에 연령이 많고 결혼기간이 긴 중년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의무' 보다는 '정'으로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이에 반해 결혼기간이 적고 비교적 젊은 중년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 보다는 도리, 당연, 의무로 여기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외에 소수의 중년여성들 특히 30, 40대의 응답자들이 의료인, 간병인, 중풍경험자,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기대를 떠올렸고 이들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기대내용으로 의료인, 간병인 및 중풍경험자로부터는 치료적 도움,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 및 실제 간호등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적 도움,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서의 지지의 기대는 앞으로의 치료 방향 설정 등의 조언, 위로, 위안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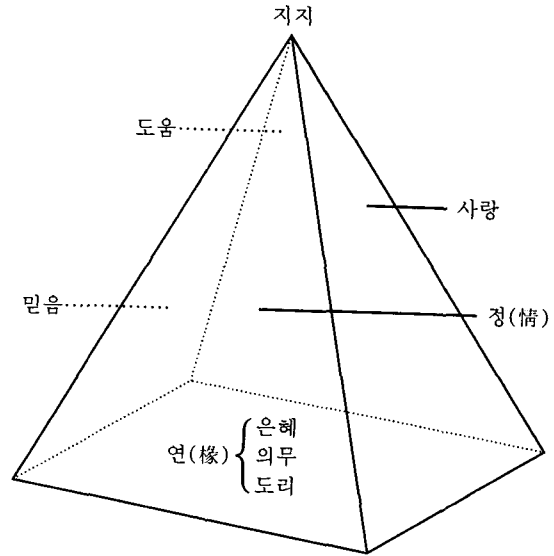
표현하고 있어서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인 지지로부터 공적인 사회적 지지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중 일부 중년여성은 부처님, 하느님과 같은 절대자가 앞으로의 방향을 인도해줄 것이라는 기대, 정신적 위로 및 위안 등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를 부처님이나 하느님 등의 절대자로부터의 보살핌의 은혜, 믿음 및 절대자에 대한 의지 등 은혜, 믿음, 의지 등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결과 우리 중년여성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에는 '정', '도움', '믿음', '사랑' 및 '은혜', '도리',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994)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가 연을 기본으로 한 '정', '도움', '믿음' 및 '은혜'와 비교하면, '은혜'보다도 '사랑'의 개념이 더 많이 표현되고, '은혜' 뿐 아니라 '도리', '의무'의 개념이 포함되는 결과였다. 본 연구자들은 각각의 표현들을 응답자들이 사용한 상황과 연결지어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한국인의 사회적지지 피라미트'의 개념들을 <그림 1>와 같이 수정하였다. 즉 한국인의 지지적 관계는 '연'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연'이 형성되어 있음은 곧 '은혜' '도리' 및 '의무'를 당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은혜' '도리' '의무'의 개념은 '연'의 형성과 동시에 자리잡는 것이어서 한국인의 관계에서 '연'은 '은혜' '도리'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수정된 한국인의 사회적지지 피라미트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의 하나였던 '은혜'의 개념을 '도리' '의무'와 함께 '연'의 요소로 포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의 개념에 포함시켰던 '사랑'을 분리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수정된 한국인의 사회적지지 피라미트는 '은혜' '도리' '의무'가 내포되는 '연'을 바탕으로 '정' '사랑' '도움' 및 '믿음'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와같은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1994)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사랑'을 '정'의 속성으로 보고 능동적인 측면으로 내린 정의(김주희, 1992)를 수용하여 '사랑'을 '정'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면담중 많은 응답자가 '사랑'과 '정'은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였고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이 구별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임태섭(1995)은 정과 사랑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랑'은 ① 상대방



<그림 1> 수정된 한국인의 사회적지지 피라미트

을 원하고 갈구하고 상대방을 아끼며 상대방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는 감정상태 ② 남녀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거처가는 단계중의 하나로 서로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무르익은 상태 ③ 서로를 아끼는 마음 따스함, 은근함 그리고 비타산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과 동일한 개념 그리고 ④ 주어진 관계의 역사를 통틀어 일컫는 말 즉 '정'의 역사의 4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논의를 거쳐 '정'과 '사랑'을 분리하여 '사랑'을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기로 결론지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었던 '은혜'를 '도리' '의무'와 함께 '연'에 함축시켰다. 이의 근거는 먼저 본 연구결과 '은혜', '도리', '의무'의 개념은 다른 개념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가 중풍으로 누워있는 상황일 때 중년여성들은 지지기대자로 시부모, 친정부모를 많이 떠올렸고 이들로부터의 지지를 '은혜'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많았던 반면에, 자신이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제시하면서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도리' '의무'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 세 개념은 배우자 상황과 본인 상황에서 단어의 표현 빈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최재환(1985)은 한국사회의 근본원리로 '도(道)'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의 개념은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규범, 인륜으로 충, 효, 성, 경, 인간존중의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 이는 모든 행위의

근본, 경애의 정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진실성, 성실성 등 인간생활의 도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도리, 보은, 은혜의 함축적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도'의 개념은 혈연, 지연 등의 '연'에 기초한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연'의 형성은 '도'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때문에 본 연구자들은 은혜, 도리 및 의무의 개념은 이미 '연'에 내포되는 개념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응답자들 자신이나 배우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된 지지적 관계의 대상은 가족이었다. 그러나 일부 30, 40대의 비교적 낮은 연령의 중년여성들은 의료인, 간병인, 중풍 경험자,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부터의 지지를 기대했다. 이는 미약하나마 우리 사회의 지지적 관계가 제한된 관계에서의 사적 형태의 지지로부터 공적인 형태의 지지로 또는 도구적 지지에 대한 기대의 확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수복(1996)은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동정심과 측은지심이 가족과 친지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구의 사회적지지 개념은 사회적지지가 이루어지는 맥락적 상황은 대인관계적 상황이며, 이는 개인과 집단을 모두 포괄하고, 대인관계는 공적 혹은 사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지지적 관계의 출발점인 관계적 상황 즉 이미 설정되어있는 관계의 틀은 주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사회적지지의 개념과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적 유사한 인간관계의 틀을 갖고 있는 일본사회의 인간관계에서의 지지관계는 이미 공적인 영역으로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 문화에서 지지적 관계는 내측세계에서만 존재하고 바깥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측세계에 있는 인간관계에서는 두사람간의 상호존성을 의미하는 'Amae' 관계를 강하게 보이므로, 일부 일본의 이론가들은 일본에서의 사회적지지는 'social support'로 부르기도 보다는 'personal support'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Minami, 1989). 그럼에도 현대에 들어서 일본인의 관계맥락에서의 지지관계는 시민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공적 영역에서의 지지관계의 성립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한국사회와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인의 지지적 관계는 가족 등의 사적인 흐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공적 흐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는 사회적지지의 개념에 대한 실천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의 한국적 의미를 확인한 선행연구(오가실등, 1994)의 후속으로 한국 중년 여성의 지지경험에 기초하여 한국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비교적 동질적이면서 지지경험이 두터워서 한국사회에서의 지지 경험의 속성을 잘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서울, 대전,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5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 여성 41명이었다. 연구도구는 가상적 상황으로 중년층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중풍을 선택하였으며, 배우자와 중년여성 자신이 중풍으로 쓰러진 가상적 상황에서 생각나는 대상, 대상으로부터의 기대내용 및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 면접안내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들이 직접 1994년 6월에서 1995년 6월까지 1년간 면접안내지를 이용하여 심층면담을 하였고 면담자료분석은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는 연을 바탕으로 하여 '정', '도움', '믿음' 및 '사랑'의 측면으로 모여진 피라민의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1994)인 일반 성인들과의 면담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가 연을 기본으로한 정, 도움, 믿음 및 은혜와 비교하면 '은혜'의 개념이 '도리', '의무'와 함께 '연'의 전제로 포함되고 대신에 '사랑'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문화에서 지지의 개념은 서구 사회와는 달리 관계적 맥락이 중시되며, 관계는 연을 바탕으로 하며, 정, 믿음, 도움 및 사랑의 속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의 지지의 흐름은 사적 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은 이를 공적 활동 또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지지 개념에 대한 실천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동 (1993). 한국사회 변동론. 서울: 나남출판.
 김주희 (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서울: 집문당.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손인수 (1984). 한국인의 도(道)와 미풍양속. 서울: 문음사.

오가실, 서미혜, 이선옥, 김정아, 오경옥, 정추자, 김희순 (1994). Social support의 한국적 의미. 대한간호학회지, 24(2), 264-277.

이규태 (1991). 한국인의 의식 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이규태 (1992). 서민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이규태 (1994). 한국인의 정서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일상문화연구회 (1996). 한국인의 일상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서울: 한울.

정수복 (1996). 한국인의 모임, 일상문화연구회(1996), 한국인의 일상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서울: 한울.

임태섭 (1995). 정, 채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문화사.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최재환 (1985). 천부경: 민족의 뿌리. 서울: 한민족.

한영우 (1987). 한국의 문화 전통. 서울: 을유 문화사.

Minami, H. (1989). Keynote address, Second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upport: proceeding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atterson, B. J. (1992). Social support: A fieldwork study of adjusting to life in a nursing home, Doctoral Dissertation: Rhode Island Univ.

- Abstract -

Key concept: Korean social support, Yun, Jung, Do-oom, Sa-Rang, Mi-Dum

**Identification of Attributes
Constituting Korean
Social Support ***

- Based on Middle-Aged Women -

*Oh, Kasil** · Oh, Kyong Ok*** · Kim, Jeong Ah****
Lee, Sook Ja***** · Kim, Hee Soon**
Jeong, Chu Ja***** · Park, Young Jo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attributes constituting Korean social support and to validat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Search for the meaning of social support in Korean Society.' The informants were 41 Korean middle-aged women in three cities: Seoul, Daejun and Daegu.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using the interview guide from Jun. 1994 to Jun. 1995. The interview guide was developed in the simulated situations of 'Stroke attack' which expected to be in need of social support. The women were asked to answer what they felt and the appropriate terms representing the situations.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Consequently, the Korean social support pyramid was modified as follows:

Support is the apex of the pyramid. The four sides of the pyramid are made up of 'Jung'(Bound by ties of affection, regard or shared common experience, Connectedness), Do-oom(both emotional and material help), Mi-dum(Faith or belief in) and Sa-Rang(Love). The base of the pyramid is 'yun'(the basic network of relationships in Korean culture) that connote the meaning of Eunhae(Benevolence), Euimu(duty, responsibility) and Dori(obligation).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igma Theta Tau, 'Social Support' interest group Members.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nam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 Director, Dept. of Nursing, Byukjae Military Hospital.